

1970년대 미국 다큐멘터리 영상에 관한 연구
 - 비비안 마이어(Vivian Maier)의 영상을 중심으로
 A Study on American documentary films in 1970s
 - Focusing on Vivian Maier's film

양기성*, 양종훈**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 박사과정
 (KBS 영상제작국장)*,
 상명대학교 디지털이미지학과 교수**

Yang ki-sung*, Yang jong-hoon**

Sangmyung Univ. The Doctor's course
 (Executive Director, Visual Production, KBS)*,
 Sangmyung Univ. Prof.**

1. 작품 이미지



2. 작품 설명

Vivian Maier's Documentary Film - 'Chicago Murder of Mother and Baby' (1972's)

비비안 마이어(Vivian Maier)는 오랜 세월 동안 사진을 찍으면서 무비카메라(8mm, 16mm)로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그녀는 그 수많은 사진이나 동영상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와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사진이 현재 재평가를 받고 있는 미스터리 하면서도 궁금증을 유발하는 작품의 매력은 51초, 13컷의 이 짧은 영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72년 시카고에서 발생한 모녀 살인사건을 다룬 이 영상과 함께 남긴 그녀의 메모는 약자의 편에 있던 그녀의 마음을 대변한다. 트라이포드(Tripod)를 사용하지 않은 들고 찍기

(Hand held) 촬영을 통해 그녀가 바라본 사건의 재구성은 단순히 재미를 위한 촬영이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영화적 촬영기법과 그녀만의 스토리가 내재되어 있고, 정통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 51초의 짧은 다큐멘터리지만 그 안에서 비비안 마이어는 사건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이를 완벽한 다큐영상의 형태로 구현하고 있다.

3. 작품 평론

비비안 마이어가 촬영한 '시카고 모녀살인사건'(1972's)은 영화에서의 미장센과 히든메시지(Hidden Message), 그리고 여러 영상문법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먼저 영상으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통로로 오프닝과 엔딩에

줌 인, 아웃(Zoom in, out)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카메라의 영상문법이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눈을 맡기고 영상에 주목하게 만든 것이다.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개의 모습에서 줌 아웃(Zoom out)하면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의 장례식장을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효과도 만들어냈다. 그녀가 바라본 이 사건은 언뜻 보면 시간의 흐름, 즉 타임라인(Timeline)을 따라 사건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13컷에 담긴 그녀의 메시지는 분명해 보인다.

오프닝에서의 붉은 신문함, 그리고 그 안에 사건관련 신문으로의 줌 인(Zoom In)으로 이 영상이 보여줄 방향성을 확실하게 제시한다, 살인사건과 어울리는 붉은 색을 강조하고, 그 안에 사건의 내용-피의자의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비비안 마이어는 미장센을 이용해 사건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51초 길이의 이 다큐영상에서 당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누구든 살인사건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무의식적 공포감을 심어주는 히든 메시지를 주고 있다. 또한 장례식장 앞에서 두 여인과 여자아이를 따라 카메라가 왼쪽으로 팬(Pan)하면 뒤에 검정색 영구차가 프레임 인(Frame in) 되는 영상은 '시카고 모녀살인사건'의 최고 하이라이트로 보여 진다. 두 여인과 아이가 이 살인사건의 유모와 모녀를 상징하고, 검정색 영구차는 죽음을 상징하는 이미지 샷으로 이 장면은 연출의 디테일을 촬영으로 풀어낸, 그녀가 보여주고자 한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히든 메시지로 풀이 된다.

비비안 마이어는 당시 정치와 사회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여자들도 자기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다.¹⁾ 하지만 그녀는 본인이 촬영한 모든 영상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다. 금전적인 문제로 공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변의 증언도 있지만 그녀의 작품은 세상을 향한 외침이었고, 또한 그녀가 외칠 수 없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영상 속 평화로운 마을에서 중년신사를 창밖에서 촬영한 장면에서 드러나듯 비비안 마이어는 남성에 대한 두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서 카메라를 들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카메라와 녹음기를 같이 들이대며 여자들도 의견을 말해야 한다고 외쳤던 그녀는 혼자만의 세상에서 소외됐고 외로웠고 또 두려웠다.

영상 말미에 등장하는 거울에 반사되어 비친 두 여인의 모습은 비비안 마이어가 세상과의 단절과 세상을 향한 외침사이에서 얼마나 갈등했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장례식장 길 건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두 여인의 모습, 그리고 그녀들을 거울에 가둔 채 장례식장을 보여줌으로써 그녀는 약자에 대한 배려나 보살핌이 부족했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자신을 대변한다. 신문함 속에 들어있는 웃고 있는 가해자 소녀의 사진, 두 여인의 웨이스트 투샷(W2S) 뒤 거울에 갇힌 두 여인의 미러 샷(Mirror Shot)은 그녀가 프레임을 통해 세상을 보았고, 그 작은 프레임 안에 갇혀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녀의 많은 작품들 속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스스로를 프레임 안에 가두려했던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1) Documentary Film 'Finding Vivian Maier', 2013 (00:27:54-00:28:42)